

요한복음 32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본문: 요한복음 6:52-59

떡을 먹은 무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육신의 떡만을 얻고자 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으로 무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생명의 떡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다.

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을 그 말의 뜻을 이해 하지 못하고 크게 반발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52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에 대한 예수님은 긍정적인 대답과 부정적인 대답을 하셨다. 긍정적인 대답은 내 살을 먹고 내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하셨다. 부정적인 대답은 인자의 떡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셨다.

I.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

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음식과 음료는 그가 말씀하시고 있는 참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 영생을 주는 그런 종류의 양식이요 음료이다.

56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된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양식으로 먹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한 이유이다. 그의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간다. 우리는 그의 생명의 일부가 되고 그는 우리의 생명의 일부가 되는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고는 영생이 이루어질 수 없다.

35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예수님께 온다는 말이 서로 유사한 것처럼 40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54절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말은 서로 유사성이 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은 “나를 믿으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영접하라, 나로부터 양분을 취하라, 나로부터 생명을 얻으라”는 말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51절

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은 내 살이다”라고 말할 때, 그는 세상을 위하여 희생으로서 그의 몸을 준다는 의미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십자가를 내다보고 가르치고 있다.

요한복음 3:14-15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을 기억하라.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라” 것처럼 그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말할 때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서 그를 의지하라는 의미이다. 너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신 분으로서 그를 의지하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진 분으로서 그를 귀하에 여기라(요 3:26). 그의 육신의 고난과 피를 흘리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먹으라, 믿으라는 뜻이다.

II.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않는 자.

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는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뜻이다. 중간은 없다.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한다.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를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나는 구원받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아무 거리낌이 없이 말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얼마나 무지한 말인지 모른다,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른다. 믿지 않는 자에게 닥치게 될 위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것이다.

요한복음 3:18-19절, 36절을 읽어 보라.

18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36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믿으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들이 죽은 후 지옥에 가서야 그 사실을 일게 된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때야 그 형제들은 그 고통 받는 지옥에 오지 않기를 소망하여 이렇게 말한다.

누가복음 16:27-28

27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기서 왜 우리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된다.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믿을 수가 절대로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삶이 얼마나 지금 이 세상에서도 복 된 것인가를 체험해야 한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맛보고 누릴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누리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생의 삶을 보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다.

III.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들이 누리는 축복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의미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 깊은 연합을 체험하게 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 것을 체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 신비여서 우리의 육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역사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이해 하게 된다. 칼빈은 “이해력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것을 믿음으로 포용해야한다”고 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 되었다는 것을 맛보고 경험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삶이 얼마나 축복 된 삶인가를 우리는 경험해야 할 것이다.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의미는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와 같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말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와 같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칼빈도 “그것은 너무나 높은 신비여서 나의 영으로서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고 나의 말로서 표현 할 수가 없다고 시인할 것이다.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것 이상을 내가 느끼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 놀라운 신비적인 관계를 깨달을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칼빈은 느낀다는 것이다. 경험했다는 뜻이다. 우리의 선배들, 사도들은 이 신비를 맛본 사람들이다. 우리도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서 그 신비를 맛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비를 맛보기 위하여 갈망하며 살아야 한다. 신자가 되었다는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과 연합된 축복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 축복을 맛보고 누린다면 우리가 이 축복을 알지도 못하고 알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수 천명의 무리와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다(66). 오직 11명의 사도들만이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68).

오 주여 참된 양식인 주의 살을 먹고 참된 음료인 주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 자신의 생명을 충만히 나누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원하나이다.